

자본주의 즐기는 北 2030...장마당은 '한류바람' 진원지



장마당은 골목이나 길거리에 있는 비공식 시장과는 달리 북한 당국이 직접 건물을 지어 주민들의 상거래를 허가한 장소로, 하루 100만~18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갈색머리·칼머리·맘보바지...단속 피해 남한 스타일 즐겨
세금내는 공설시장 평양 31곳 등 383곳...비공식은 두배
국가 명의 기업소·상점·식당도 개인 자금 투자 이윤 추구
평양 택시 1500대 영업...주민들도 소고기 쉽게 접해



지난달 13일 열린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공개된 여명거리의 모습을 조선선보가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들은 국가 재산인 광석, 수산물, 농산물, 노동력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로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시장에 소고기 등장...택시 영업도 확대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영업이 확대되고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게재한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시장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묵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시장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고, 시장 규모 역시 꾸준히 확대돼 국영 부문과 시장 부문이 밀접하게 결합해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화와 관련해 2012년개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개인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택시영업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에만 1500대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이 대부분이지만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 역시 최근의 북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변화 양상 중 하나다. 북한에서 소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돼 공동소유만 가능하므로 사적인 도살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일반 주민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

지만 최근 시장에서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영업이 확대되고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 청년들, 한류 스타일 =북한 공안당국의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머리 모양이나 패션은 남한 스타일로 바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리타분한 조선(북한) 머리보다 자본주의 스타일의 머리 모양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진과 회령 등의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최근 머리를 연한 갈색으로 염색하거나 앞머리를 삐죽삐죽 길게 내린 '칼머리', 몸에 달라붙는 '맘보바지' 등을 선호한다.

북한이 이런 행위를 '비사회주의 문화'로 규정하고 공안당국을 내세워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20~30대의 '장마당' 세대들은 모자를 쓰거나 수건 등을 이용해 머리를 가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문화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가 청년들의 몸치장뿐 아니라 의식도 변화시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선 후보 통일 공약 극과 극

문재인·안철수 '햇볕정책 2.0' 홍준표·유승민 '봉쇄정책 2탄'

북핵·사드 현안에 남북대화·인도적 교류는 뒷전
심상정, 남북관계 개선-비핵화·평화체제 수립 모색

■ 대선후보 통일분야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남북경협	북핵 해결따라 한반도 신경제 벨트 구축		남북관계 개선 이후 북방경제 성장 시대 추진	향후 북한의 핵 포기 국면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	남북경제사회 협력 강화 협정 체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유엔재제 국면에서 논의 시기상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철회
남북대화		비핵화가 우선	대북 제재 지속하면서 대화, 협상 모색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	대화복원 및 정례화
6자회담	6자회담 플랫폼 재건		6자 회담 장관급 회의의 설치·운영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 회담 병행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이산가족 수시 상봉, 서신교환, 자유왕래, 고향 방문 추진	임기 내 이산가족 문제 전면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햇볕정책 2.0'이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봉쇄정책 2탄'이나.

19대 대선 후보들의 통일분야 공약은 극과 극이다. 전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며, 후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장이다.

공통점은 북핵과 미사일, 사드 배치 등 안보현안에 대한 선진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남북대화·인도적 교류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물론 만 있을 뿐 각론은 사라졌다. 자칫 '북풍 공세'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비핵화·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소신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의 통일정책 기초는 '민생·경제 통일'이다.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민생을 중심에 둔 접근, 지자체 및 민간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남북협력에서 국회의 역할 증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공약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안보·종북 프레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핵 해결 방안 등에서 우클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5·24조치, 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 현안은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 북한측에 리퍼발사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2+2 남북장관급회담'을 임기 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각급 남북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 제도화위원회'를 설치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4대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 후보처럼 개성공단, 5·24조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상정 후보는 국방개혁-남북관계-비핵화·평화체제 사이에 선순환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의 토대이자 문민통제를 규정하는 '국방기본법 제정' 공약이 눈길을 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상설화 등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대북정책은 흡사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군사적 수단은 물론이고 전쟁위협 대북 제재 및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아직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듯 남북교류 방안은 공약 집에 담지조차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